

문인철  
연구위원

박은현  
연구위원

송미경  
연구위원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 및 그룹화와 정책 모듈화



2025. 10. 27.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33호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 및 그룹화와 정책 모듈화

문인철 연구위원

02-2149-1255  
mic555@si.re.kr

박은현 연구원

02-2149-1084  
crossehp@si.re.kr

송미경 연구원

02-2149-1422  
meekyong@si.re.kr

요약	3
I.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현황	4
II.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	8
III. 개발수요에 따른 그룹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방향	12
IV.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 모듈 재구조화	16

## 요약

그동안 여러 선진국과 주요 도시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도시 발전 모델로 서울시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최빈국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ODA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도시의 선별기준 마련과 해외 도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모듈화 작업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과 그룹화 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ODA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도시를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협력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는 사업 수월성과 성과, 원조 필요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량적 지표(인간지수개발, 민주주의 지수, 1인당 GDP 및 GNI, 도시화율 등)를 활용하여 협력 대상도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정량적 기준을 통해 100개 도시 대상으로 3개의 대그룹화 필요

1차 선별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 즉, ①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②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 수도와 제2 도시, ③ 서울시와 ODA 사업을 추진한 경험(사례)이 있는 도시, ④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도시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ODA 협력대상 후보 도시는 총 170개로 압축된다. 이 도시를 대상으로 다시 네 기준(사항)을 토대로 그룹화하면 ‘중점협력도시그룹’,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그룹’,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 등 3개 대그룹, 총 100개 도시로 정리할 수 있다.

### 축적한 도시 발전 정책 경험을 ODA 사업에 활용하고 고도화 위해 정책 모듈화 필요

정책 모듈화는 서울시가 축적한 도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협력 도시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OD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명서 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모듈화는 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에 중점을 두며, 정책별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수행 방법, 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과 고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서울시립대 등 관련 산하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정책 모듈화 등 ODA 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현황

## I 서울시,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저개발국 도시문제 해결에 힘써야

효과적인 ODA 사업은 서울시의 해외 위상, 글로벌 영향력,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다양한 도시문제 동반
  - 2024년 기준 전 세계 도시화율은 57.5%이고, 2025년 58.3%, 2030년 60.4%, 2035년 62.5%, 2040년 64.5%, 2045년 66.4%, 2050년 68.5%로 예측<sup>1)</sup>
  -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사회기반시설·주택·물 부족, 공기(대기)·쓰레기 오염, 교통난, 범죄 증가 등 시민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 동반
- 서울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 그동안 축적해 온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정책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도시가 직면한 도시문제 해결책(solution)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필요
  - 서울시(SUSA 포함), 2006년 이후 2024년 3월까지 총 107개 ODA 사업 수행
  - 201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연간 추진 실적이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연도별 사업 증가
  - 2015~2018년, 서울시 역대 ODA 사업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49개의 ODA 사업 추진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원활한 ODA 사업 수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해외 협력도시의 선별기준 마련과 정부, 민간, 서울시 산하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
  -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과 더불어 실제 실행에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 작업이 중요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정책아카이브’를 통해 서울의 도시 발전 지식을 제공
    -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적인 ODA 사업을 위해 기존 자료의 업데이트와 신규 사업 추가가 필요한 상황

1) 통계청, ‘도시화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4&vw\\_cd=MT\\_RTITLE&list\\_id=R\\_SUB\\_UTITLE\\_A&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A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4&vw_cd=MT_RTITLE&list_id=R_SUB_UTITLE_A&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A4)

# I 서울시 ODA 지역·분야·유형별 사업 추진 현황

## 지역별 서울시 ODA 사업 현황: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심

- 서울시 ODA 수원 지역은 한국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가 64건(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남미(18건, 16%), 아프리카(16건, 14%) 순으로 높은 비중

[표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역별 현황(2024년 3월 기준)

구분	사업 건수	구성 비율
아시아	64개	57%
아프리카	16개	14%
중남미	18개	16%
유럽	8개	7%
오세아니아	3개	3%
중동	3개	3%
합계	112개	100%

주: 총 107개 사업이나,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 지원 자문'('16~'17, '18~'19)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중동 등 복수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 사업임. 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큼 별개 건수로 잡아, 총 112개 합계가 도출됨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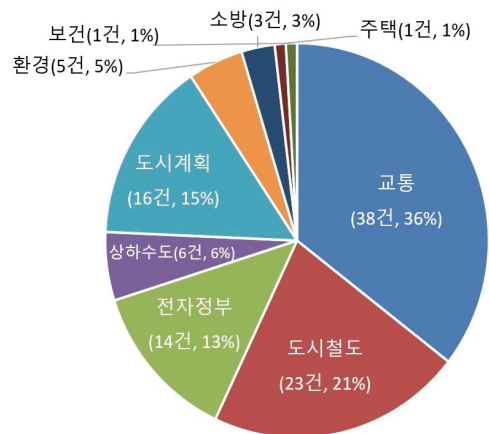
## 분야별 서울시 ODA 사업 현황: 교통, 도시철도, 도시계획, 전자정부 중심

- 2024년 3월 기준, 서울시 ODA 사업 중 교통(38개) 분야 사업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다음으로 도시철도(23개, 21%), 도시계획(16개, 15%), 전자정부(14개, 13%), 상하수도(6개, 6%), 환경(5개, 5%), 소방(3개, 3%), 주택·보건(각각 1건, 각각 1%) 순

[표 2]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분야별 현황(2024년 3월)

구분	사업 건수	구성 비율
교통	38개	36%
도시철도	23개	21%
전자정부	14개	13%
상하수도	6개	6%
도시계획	16개	15%
환경	5개	5%
소방	3개	3%
주택	1개	1%
보건	1개	1%
합계	107개	100%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분야별 사업 개수 현황('24.3월 기준)

## 유형별 서울시 ODA 사업 현황: 자문,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시스템 구축 중심

- 서울시 ODA 사업은 크게 컨설팅과 구축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컨설팅 유형: 자문(26개, 24.3%), 계획수립(22개, 20.6%), 타당성 조사(21개, 19.6%), 역량 강화(8개, 7.5%) 순
  - 구축 유형: 시스템구축(12개, 11.2%), 시공(5개, 4.7%), 사업관리(5개, 4.7%), 시범 사업(3개, 2.8%), 설계(3개, 2.8%), 기자재(2개, 1.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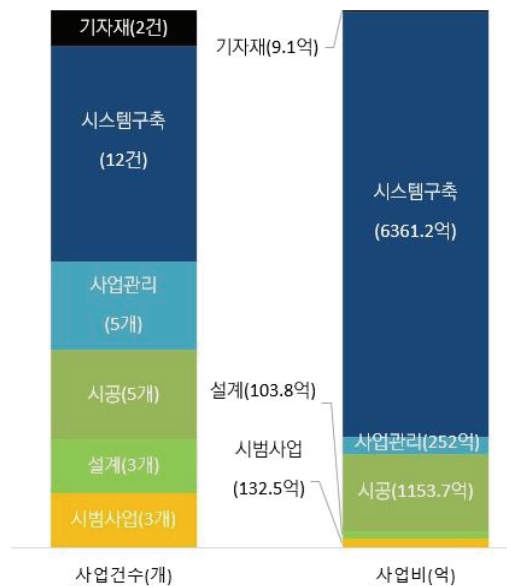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유형별 현황('24.3월 기준)

구분		사업 건수(%)	사업비(억 원, %)
컨설팅	자문	26개(24.3%)	144.38(1.7%)
	역량강화	8개(7.5%)	19.64(0.2%)
	계획수립	22개(20.6%)	106.54(1.3%)
	타당성조사	21개(19.6%)	75.25(0.9%)
컨설팅 합계		77개(72%)	345.80(4.1%)
구축	시범사업	3개(2.8%)	132.5(1.6%)
	설계	3개(2.8%)	103.78(1.2%)
	시공	5개(4.7%)	1,153.68(13.8%)
	사업관리	5개(4.7%)	252(3%)
	시스템구축	12개(11.2%)	6,361.24(76.1%)
	기자재	2개(1.9%)	9.05(0.1%)
구축 합계		30개(28%)	8,012.25(95.9%)
전체 총합		107개(100%)	8,358.05(100%)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바탕으로 작성



[그림 2] 컨설팅 분야 사업 개수와 사업비 비율



[그림 3] 구축 분야 사업 개수와 사업비 비율

## 서울시 도시 네트워크, 사업 연속성, 활용 가능 자원 조건 충족하는 ODA 수원국, 총 20개국

- 서울시의 도시 네트워크, 기(既) 시행된 서울시 ODA 사업과의 연속성, 중앙정부의 ODA 자원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국가, ODA 사업 다수 진출국(3회 이상), 3기 중점협력국 중 2개 이상 중첩 국가는 총 20개국
  - 아시아(11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남미(3개국), 중동-CIS-동유럽(2개국)

[표 4] 서울시 도시 네트워크, 사업 연속성, 활용 가능 자원 조건 충족하는 ODA 수원국

지역	친선-우호도시 국가	ODA 사업 다수 진출국	3기 중점 협력국	합계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팔</li> <li>• 대만</li> <li>• 라오스</li> <li>• 몽골</li> <li>• 베트남</li> <li>• 스리랑카</li> <li>• 인도</li> <li>• 인도네시아</li> <li>• 중국</li> <li>• 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li> <li>• 말레이시아</li> <li>• 미얀마</li> <li>• 방글라데시</li> <li>• 베트남</li> <li>• 인도</li> <li>• 인도네시아</li> <li>• 태국</li> <li>• 필리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팔</li> <li>• 라오스</li> <li>• 몽골</li> <li>• 미얀마</li> <li>• 방글라데시</li> <li>• 베트남</li> <li>• 스리랑카</li> <li>• 인도</li> <li>• 인도네시아</li> <li>• 캄보디아</li> <li>• 파키스탄</li> <li>• 필리핀</li> <li>• 인도</li> </ul>	11개
	•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공</li> <li>• 모잠비크</li> <li>• 우간다</li> <li>• 에티오피아</li> <li>• 이집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간다</li> <li>• 케냐</li> <li>• 탄자니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li> <li>• 르완다</li> <li>• 세네갈</li> <li>• 우간다</li> <li>• 에티오피아</li> <li>• 이집트</li> <li>• 탄자니아</li> </ul>	4개
	•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탄자니아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li> <li>• 아르헨티나</li> <li>• 파나마</li> <li>• 콜롬비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li> <li>• 콜롬비아</li> <li>• 페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리비아</li> <li>• 콜롬비아</li> <li>• 파라과이</li> <li>• 페루</li> </ul>	3개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중동 CIS 동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li> <li>• 우즈베키스탄</li> <li>• 우크라이나</li> <li>• 카자흐스탄</li> <li>• 벨라루스</li> <li>• 루마니아</li> <li>• 이란</li> <li>• 오만</li> <li>• 세르비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베키스탄</li> <li>• 우크라이나</li> <li>• 키르기스스탄</li> <li>• 타지키스탄</li> </ul>	2개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주1: ODA 사업 다수 진출국은 사업 수행 건수 3회 이상을 기준으로 선별

주2: 친선-우호도시 국가 중 OECD 회원국 23개국 제외

주3: 합계는 2개 이상 겹치는 국가 수를 의미

자료: 이민규·박은현·송미경, 2024,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복합적 진단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61; ODA Korea 홈페이지; 서울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정리

## II.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

### I 1차, 2차 정량적 선별기준에 따라 3개 대그룹과 7개 소그룹으로 구분

#### 서울시 ODA 협력 대상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 방향

- 일반적으로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대상국에 대해 일부 국가만 포괄적인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고, 대부분 국가는 논란과 갈등을 피하려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 비공개
  -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의 중점협력국 선정의 우선적 고려 사항은 ‘소득수준’, ‘빈곤정도’ 등 수원국에 대한 ‘원조 필요성’과 공여국의 이익을 고려
    - 첫째, 수원국이 원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 둘째, 공여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서울시의 ODA를 위한 협력 대상도시 선별 및 그룹화는 사업 수월성과 성과, 원조 필요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서울시는 원조 및 협력의 시너지와 ODA 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ODA 정책 기조도 함께 고려하여 협력도시 선별과 그룹화 필요

#### 1차 선별 기준

- 협력 수월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서울시와 관계가 있으며,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순위 설정, 이후 그룹화
  - 첫째,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 둘째,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 수도 및 제2 도시
  - 셋째,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도시
  - 넷째,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의 도시
- 1차 기준으로 선별하면, 서울시 협력대상 후보 도시는 총 170개
  -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76개
  - 정부 중점협력국 수도 및 제2의 도시: 54개
  -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 18개
  -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 22개<sup>2)</sup>

2) 서울시 친선우호도시(76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 도시(54개)도 아님

## 2차 선별 기준

- 1차 선별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화율, 빈곤율,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도시화율과 빈곤율은 수원국 도시의 발전 수준의 척도
  - 정치적 상황은 ODA 수행 가능 환경 측면에서 고려
  -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은 사업 추진의 수월성과 성과와 관련
- 2차 선별 결과, 협력 후보 도시는 총 100개. 개별협력 우선순위에 따라 3개 대그룹과 7개 소그룹으로 구분 가능
  - 대그룹 1: ‘중점협력도시그룹’
    - 소그룹 1-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
    - 소그룹 1-2: 정부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있는 도시
  - 대그룹 2: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그룹’
    - 소그룹 2-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
    - 소그룹 2-2: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
    - 소그룹 2-3: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없는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 도시
  - 대그룹 3: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
    - 소그룹 3-1: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고, 친선우호도시도 아니지만, 정부중점협력국에 포함된 도시 중 수도와 제2의 도시
    - 소그룹 3-2: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없는 OECD DAC의 ODA 수원국에 포함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표 5]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그룹화

대그룹(3개)	소그룹(7개)
1. 중점협력도시 (19개 도시)	1-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11개 도시)  • 도시: 울란바토르, 호치민, 콜롬보, 반둥, 자카르타, 아디스아바바, 카이로, 타슈켄트, 키이우, 보고타, 캄팔라
	1-2: 정부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있는 도시(8개 도시)  • 도시: 메트로 마닐라, 뭄바이, 판집, 심라, 후블리, 다낭, 후에, 광남, 광찌, 양곤, 만달레이, 치타공-치키아스타, 중부자바, 세부, 아크라, 다르에스 살람, 도도마, 아르샤, 찬차마요, 리마, 다카, 마가티

2.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 (42개 도시)	2-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22개 도시)
	• 도시: 베이징, 아테네, 방콕, 웰링턴, 마푸토,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나마시티, 델리
	2-2: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18개 도시)
3. 일반협력도시 (39개 도시)	3-1: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고, 친선우호도시도 아니지만, 정부중점협력국에 포함된 도시 중 수도와 제2의 도시(19개 도시)
	• 수도(9개): 프놈펜, 네피도, 키갈리, 다카르, 라파스, 비슈케크, 이슬라마바드, 두산베, 아순시온 • 제2의 도시(10개): 바탐방, 무산제, 생루이, 산타크루즈 데 라 시에라, 쿠마시, 오쉬, 라호르, 레니나바트, 시우다드 델 에스테, 아레키퍼
	3-2: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없는 OECD DAC의 ODA 수원국에 포함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20개 도시)
	• 도시: 양카라, 상파울로, 멕시코시티, 하노이, 아스타나, 이스탄불, 민스크,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텐진시, 부크레슈티, 상하이시, 쓰촨성, 초와네, 비엔티엔, 베오그라드, 테헤란, 충칭시

## I 협력대상 선정 위해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동시에 고려해야

### 정량적 기준과 더불어 정성적 기준이 필요

-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대상 선정
  - 대한민국 정부, 대상국의 사업 수행 의지, 정책 및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점협력국 선정
  - KSP 지수, 인권 증진, 발전 잠재력, 동반관계, 정부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정성적 차원의 협력 대상도시 선별기준(안)

- 첫째, 대상도시의 사업 수행 타당성
  - 대상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가?
  -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가?
  - 다른 도시나 국가와 ODA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둘째, 대상도시의 사업 수행 의지
  - 대상도시가 사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가?
  - 대상도시의 여건에 맞게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셋째, 사업의 지속 가능성
  - 대상도시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예산, 조직, 인력 조달 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대상도시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넷째, 서울시 글로벌 약자 동행 정책 부합성
  - 서울시 ODA 사업이 대상도시의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서울시 ODA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사업 목적에 따라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중을 달리하여 협력도시 선별에 활용 가능**

- 서울시 ODA 챌린지 지원 도시 선별의 경우, 본 사업 취지와 목적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활용
  - 향후 탈락한 지원 도시를 잠정적 협력도시로 관리하는 데도 활용 가능

### Ⅲ. 개발수요에 따른 그룹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방향

#### Ⅰ 대그룹 1: 중점협력도시 그룹

##### 소그룹 1-1의 중점 ODA 추진 분야는 교통 및 인프라

- 소그룹 1-1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외교관계, 전략적 부합성, 협력 효과성 및 필요성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그룹
- 도시문제 주요 분야는 교통, 인프라, 주택, 환경이며, 상대적으로 교통 분야가 가장 심각
  - 도시문제의 영역별 비중: 교통 22.27%, 인프라 21.82%, 환경 20.00%, 주택 17.27%, 경제·사회 11.36%, 재난·위험 6.82%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주요 이슈는 교통, 인프라, 환경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교통 22.73%, 인프라 20.45%, 환경 20.00%, 주택 17.73%, 스마트 시티 및 기술통합 10.91%, 도시계획 7.27%
- 따라서 서울시는 소그룹 1-1에 교통 및 인프라 분야의 ODA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교통 분야는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보급에 대한 KSP나 버스와 같은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 필요
  - 인프라 분야는 노후화된 도로나 하수도, 주택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 및 하수도 개선, 주택 보급 등에 관한 KSP나 관련 자원 및 재원 지원 사업을 추진 필요

##### 소그룹 1-2의 중점 ODA 추진 분야는 환경, 교통

- 소그룹 1-2는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부합성과 협력 효과성이 대부분 높은 그룹
- 도시문제 주요 분야는 교통, 주택, 환경
  - 도시문제의 영역별 비중: 교통 25.63%, 주택 21.88%, 환경 21.25%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주요 이슈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교통 개선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환경 지속 가능성 25.0%, 교통 개선 23.75%, 주택 19.38%
- 따라서 서울시는 소그룹 1-2에 환경과 교통 문제에 초점을 맞춰 ODA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도시문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는 서울시 경험을 토대로 대중교통 확충과 교통 혼잡 완화, 통합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추진 필요
- 두 번째로 주택과 환경 분야는 주택 노후화 및 부족, 환경 오염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는 점에서 서울시는 주요 녹지 공간 확대, 대기 및 수질 오염 감소, 기후 변화 대응, 주택 인프라 개선 등 관련 정책 경험을 활용해 사업 추진 필요

## I 대그룹 2: 관계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 그룹<sup>3)</sup>

### 소그룹 2-1의 중점 ODA 추진 분야는 환경

- 소그룹 2-1은 전략적 부합성, 협력 효과성 및 필요성 차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정부의 중점 협력국에 해당하는 도시이며 경제 및 빈곤 수준과 도시화 수준이 낮아 협력 필요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존재하는 도시의 그룹
- 도시 문제 주요 분야는 교통이 가장 심각, 다음으로 주택과 환경
  - 도시 문제의 영역별 비중: 교통 28.33%, 주택 23.61%, 환경 23.61%, 폐기물관리 14.72%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핵심 이슈는 교통 및 인프라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교통 및 인프라 25.75%, 환경 24.75%, 주택 및 도시 확장 24.25%,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10.00%
- 소그룹 2-1의 심각한 도시 문제는 첫째로 교통 분야고, 둘째로 주택과 환경 분야이지만 실제로는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
  -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분야가 10.0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환경 분야가 34.75%로 교통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소그룹 2-1에 대해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ODA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서울시는 환경 개선 정책 경험을 활용해 대기 및 수질 오염 개선, 기후 변화 취약성 완화, 환경친화적 도시설계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소그룹 2-2의 중점 ODA 추진분야는 교통과 환경

- 소그룹 2-2는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라는 점에서 외교관계가 부족하지만 사업 추진 경험이 있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의 그룹

3) 소그룹 2-3은 그룹에 속한 대상도시가 제한적이므로 그룹별 추진 방향보다는 도시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 필요

- 도시 문제 주요 분야는 교통이 가장 심각, 다음으로 환경과 주택
  - 도시 문제의 영역별 비중: 교통 26.10%, 환경 24.44%, 주택 24.17%, 인프라 15.00%, 사회적 불평등 10.28%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주요 이슈는 교통, 환경 순으로 큰 비중 차지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교통 25.00%, 환경 23.33%, 주택 19.44%, 인프라 15.28%, 경제 및 산업 개발 12.22%, 사회적 통합 4.72%
- 따라서 서울시는 소그룹 2-2에 교통과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ODA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교통 분야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해결에 집중 필요
  - 환경 분야는 홍수나 폭염 문제, 그리고 대기 및 수질 개선,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
  - 특히 소그룹 2-2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 이슈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경험과 정보 등 KSP 정책을 추진할 필요

## I 대그룹 3: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

### 소그룹 3-1의 중점 ODA 추진분야는 환경, 교통 및 인프라

- 소그룹 3-1은 서울시와의 외교관계나 사업 경험이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대표 도시들이라는 점에서 협력 타당성이 존재하는 그룹
- 도시 문제 주요 분야는 인프라, 다음으로 주택과 교통
  - 도시 문제의 영역별 비중: 인프라 23.95%, 주택 23.68%, 교통 23.16%, 환경 18.16%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핵심 이슈는 교통 및 인프라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교통 및 인프라 25.00%, 주택 23.42%, 환경 23.16%, 기후변화 11.32%
- 소그룹 3-1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주요 이슈 중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교통 및 인프라로 서울시는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 ODA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 조성에 초점 필요
  -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혼잡 해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옵션 확대, 도로망 확장 및 현대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전력 공급, 도로 확충 및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소그룹 3-2의 중점 ODA 추진분야는 교통 및 인프라와 주택 개발

- 소그룹 3-2는 서울시와의 외교관계나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고 서울시와의 사업 경험도 없어 실제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성과에 대한 기대도 불확실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한 도시의 그룹
- 도시 문제 주요 분야는 교통이 가장 심각, 다음으로 주택
  - 도시 문제의 영역별 비중: 교통 26.75%, 주택 25.75%, 환경 21.50%, 인프라 16.00%, 폐기물 5.65%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핵심 이슈는 교통 및 인프라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영역별 비중: 교통 및 인프라 27.00%, 주택 26.00%, 환경 21.25%,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혁신 12.25%
- 따라서 소그룹 3-2에 교통 및 인프라와 주택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ODA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교통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개선,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발 등 초점을 맞출 필요
  - 주택 개발 분야에서는 주택 건설, 주거 지역 개발 및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출 필요

## I 서울시는 시행착오 줄이고 성과 위해 그룹별 도시의 특성 충분히 고려해 ODA 사업 추진 필요

### 그룹별 협력대상 도시의 특성과 서울시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ODA 사업 추진 필요

- 그룹별 협력도시의 역사와 환경, 법·제도, 문화, 정치적 환경 등이 서로 달라 하나(단일)의 정책으로만 ODA 사업 추진 불가능
- 서울시는 협력대상 도시의 특성과 서울시 경험 및 특성을 복합 다중적으로 고려해 공통된 도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룹별 ODA 사업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서울시는 협력대상 도시의 그룹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도시별 개발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이를 위해 현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ODA 사업 추진 필요
  - 또한, 서울시 우수정책 기반의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협력도시 특성에 맞게 활용 필요

## IV.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 모듈 재구조화

### I 서울시 ODA 사업 수행의 주요 자원 정책 모듈화

#### 선정된 그룹별 협력 도시들과의 ODA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 정책 모듈화 필요

- 정책 모듈화는 서울시가 축적한 정책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설명서 제작을 의미
  - 해외도시, 국제개발협력기관 등 서울의 발전 경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에 중점
  - 정책별 핵심 내용과 배경, 수행 방법, 성과를 요약하여 해외도시와 국제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외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우수정책 모듈화 사업’을 수행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을 선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국·영문으로 DB화
  - 구축된 자료는 ‘서울정책아카이브’에 제공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활용 가능
- 서울시 정책 모듈화는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도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책 사례를 제공
  - 해외도시와의 협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도시 수요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영역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
  -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는 해외사업 발굴과 협력 기관이 손쉽게 활용 가능

#### 서울시 정책 모듈화 콘텐츠 현황과 활용성

- 현재까지 서울정책아카이브에 구축된 정책 설명서는 총 375건(국문 181건, 영문 194건)
  - 도시계획, 주택, 교통(도시철도), 환경,물관리, 전자정부 6개 분야에 집중

[표 6]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 정책 설명서 DB 구축 현황('24.7월 기준)

구분	도시 계획	주택	교통 도시철도	환경	물관리	전자 정부	도시 안전	여성 복지	문화 관광	COVID-19	기타	계
국문	25	15	38	62	23	17	1	-	-	-	-	181
영문	22	9	27	57	24	23	2	16	4	3	7	194
계	47	24	65	119	47	40	3	16	4	3	7	375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 웹사이트의 국영문 정책실 분석(2024.7. 재정리 기준, 중복된 설명서 제외)

- 서울정책아카이브는 실제 활용성이 매우 높은 플랫폼으로 평가
  - 2019~2021년 연평균 약 27만 5천 명이 방문(국내 18만 8천 명 / 해외 8만 7천 명)
  - 방문자가 가장 많이 본 페이지는 정책 모듈화 콘텐츠가 집적된 ‘서울정책실’

- 서울시의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고, 도시 발전의 축적된 지식을 국내외 다수에 전파·확장 가능
  - 서울시는 정책 모듈화를 통해 경험(정책)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를 재확인하며, 이 지식을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확산 가능
  - 나아가 모듈화된 정책자료는 서울시 자체의 정책 학습과 개선에도 기여

## 서울시 정책 모듈화의 제약과 한계

- 정책 선정과 전문가 참여의 제약
  - 초기 정책 모듈화 사업(2014년)은 연대기별 주요 정책 정리와 분야별 정책 풀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 작성은 정책의 중요도보다 각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할 전문가 확보가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용
  -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직접적·지속적 참여 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선별과 모듈화 작업이 어려움
- 자료 접근성 문제
  -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더라도 원자료 확보가 어렵고 핵심 정보가 분절되어 자료를 취득·재구성하고 전문가적 시각을 반영해 글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
  - 체계적으로 '정책 모듈화 수행 방식'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품질관리에 한계가 발생
- 신규 정책 DB화와 자료 관리의 한계
  - 2018년 이후에는 업무 우선도와 인력 제약으로 국·영문 신규 등록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정책 모듈화보다는 플랫폼 유지, 영상 제작, 교육 등을 우선
  - 서울시 요청 대응 중심의 임의적 업데이트로 인해 일관된 데이터 관리와 품질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메타정보 부족으로 국영문 정책 전체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짐
  - 특히, 영문 정책설명서는 분야명이나 제목만으로 구성되어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후속 보완 작업에 한계로 작용

## I 2024년도 서울시 정책 모듈화 추진 결과

### 서울시 정책 모듈화 재추진을 위한 국·영문 통합 DB 구축 및 분류체계 개편

- 목표 및 주요 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 DB 관리 효율성 강화, 정책 모듈화 선별·활용 방식 고도화
  - 국문과 영문으로 분리되어 있던 정책자료에 대한 통합 DB 구축

- 정책 모듈화 재분류(안) 마련
  - 기존 정책자료를 재분류하고, 신규 분야·대상 확대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와 서울시 정책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국영문 병기를 통해 국영문 정책 DB 관리 및 글로벌 활용성 강화
  - 세계은행 및 OECD 사업 분류체계와 협력대상 도시의 정책 수요 조사 분석 결과<sup>4)</sup> 반영
- 정책 모듈화 재분류(안) 활용 및 적용 방안 검토
  - 2024년 재분류(안)는 정책 발굴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 면담에 활용되어 정책 선정과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
  - 서울정책아카이브 개편 및 정책 DB화 단계에서 다차원적 분류체계 적용 방안 모색
  - 정책 설명서에 키워드와 주요 용어 작성을 의무화하여 정책 분류 개편에 적용할 자료 구축

## 정책 모듈화 프로세스 재구축

- 목표 및 주요 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기존 분야별 정책 중 수요가 높은 정책 분야를 선정하여 현행화, 개도국의 최신 수요에 맞춘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추가 발굴
  - 기존 정책 모듈화 체계를 기초로 세부 단계별 추진 방향 설정

[표 7]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 추진 방향(24.7월 기준)

구분	추진 방향
정책 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대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주요 정책에서 정책 풀 형성(기존과 동일)</li> <li>- 10여 년 만에 정책 모듈화를 재시행함에 따라 1960~2010년 사이는 미발굴 사례, 우수 Case Study, 사업 발전·현행화 필요성이 높은 정책·사례 발굴에 초점</li> <li>- 2010~2024년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에 관한 정책 분야와 사례 발굴</li> </ul>
정책 선정 기준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측면: 국제기구, 해외도시에서 수요가 높게 나온 정책 분야, 주제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도시 분야의 국제 이슈 및 트렌드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하여 기존 방식과 차별화</li> </ul> </li> <li>- 공급 측면: 서울시의 도시 발전에 중요도가 높은 분야별 세부 주제, 이슈 및 키워드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가 도시로서 작성하기 위한 체계와 구성 사항 논의 집중, 시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요소와 생활 편의에 도움을 준 사례에 초점을 맞춰 기존 발굴 방식과 차별화</li> </ul> </li> </ul>
정책 선별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정책 모듈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책 선별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능 분야별 정책/키워드 선별, 원고 작성 방식 결정, 최종 검토 및 영문화 등</li> </ul> </li> </ul>

4) 2024 서울 ODA 챌린지 사례를 바탕으로 29개국 88개 도시 분석을 2단계로 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 분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주제내용·키워드를 재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관심 분야는 환경(30%), 교통(14%), 전자정부(11%), 물관리(8%), 사회경제(8%) 순이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ITS, 스마트시티, 공공공간 재생, 주거복지, 범죄 예방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협력사업은 역량 강화(26%), 시범 사업(19%), 마스터플랜(19%) 순으로 선호하였음

- 정책 모듈화 프로세스 재구축
  - 정책 모듈화 과정에서 진행 방향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재구축
  - ‘분야 선정 및 정책 선별’ 단계와 ‘정책 설명서 작성’ 단계로 이원화하여 추진 방식 정교화
  - 단계별로 분야별 관련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책 재분류 및 선별

## 서울시 모듈화 정책 선별 및 작성 체계 재구성

- 목표 및 추진 내용
  - 정책 선별과 원고 작성의 일관성, 원고 간 연계성 및 품질 제고, 국·영문 병행 집필을 통한 글로벌 활용성 강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한 원고 작성 기반 마련
  - 정책 선별 기준 고도화
    - 기존의 시계열 정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 부문과 도시에 서 해결해야 할 이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수단(실행 체계)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립

[표 8] 서울 정책 모듈화를 위한 도시계획 경험 분류체계

구분	구성
물리적 부문	- 도시의 물리적 구성과 활동을 5개 차원 1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 발굴과 선별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구조 : 토지, 공공공간, 교통</li> <li>• 도시 기반 : 상·하수, 쓰레기, 에너지, 방재, 식품, 보건의료</li> <li>• 도시 경제 : 생산, 혁신, 부동산</li> <li>• 도시 일상 : 주거, 여가, 교육, 문화</li> <li>• 자연환경 : 토양, 물, 대기/기후</li> </ul>
이슈와 지향점	- 도시의 기능적, 환경적, 인간·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도시 이슈와 지향점 매칭, 국제사회의 정책 목표·지향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간 언어 간극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적: 비효율 → 효율, 정체 → 이동성, 위험 → 안전성</li> <li>• 환경적: 난개발 → 압축성장, 오염 → 청결성, 훼손 → 자연보전, 기후변화 → 지속가능</li> <li>• 인간·사회적: 비인간적 → 인간성, 획일적 → 개성/다양성, 불평등 → 형평성, 배제/소외 → 포용성</li> </ul>
정책 실행 체계	- 정책의 실제 이행을 위한 4가지 수단(제도, 거버넌스, 금융/자원, 정보/시스템)으로 구성 - 추후 원고 구성 시 각 정책이 포함하는 실행 수단을 명시,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업데이트 가능

자료: 강명구, 2024.08.26. Urban Planning System, 서울 도시계획 경험 지식화 체계 논의 자문회의 결과 요약

- 정책 원고 작성 체계화
  - ‘총괄정책-개별정책’으로 구분하여 6가지 원고로 유형화(모듈, 개요, 사례, 부문, 이슈, 제언)
  - TIP(Topic-Issue-Plan)-CARD 체계를 적용하여 선정된 정책의 부문-이슈-수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맥락 → 실행 → 성과 → 권고’까지 일관된 설명 구조 마련
  - 독자(개도국 도시, 정책 계획·실행사 등)가 필요한 정보(성과, 실행 체계), DB화 및 웹사이트 검색·활용성 등을 전제로 각 원고 구성 통일

## 서울시 정책 모듈화를 위한 우수정책 선별 및 작성과 향후 과제

### ○ 목표 및 주요 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 선정 후 원고 작성, 원고 품질 제고와 향후 영문화 및 DB화
- 13개 분야 102개 정책과 주제 선별(2025.2. 기준 63개 원고 작성)
  - 기존 분야(7): 도시계획, 교통, 물관리, 폐기물, 안전, 주택, 대기질
  - 신규 분야(6): 공공 공간, 보건의료, 경제, 자연생태, 기후변화, 자원 조달
  - 후속 분야(4): 복지, 돌봄, 교육, 역사 문화

[표 9] 2024년도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 대상 분야 선별 및 작성 결과

대부문	분야	분야			세부 정책주제 선정 방향	주제 선별	작성 결정	초고 작성
		기존	신규	후속				
공간 구조	도시계획	○			- 서울의 도시계획 제도 최신화, 서울 3대 중심지 발전, 가로 확장·공간구조계획 중심 선별 - 해외개발사업 경험 제언 발굴	11	10	9
	공공공간		○		- 주요 공원 조성 사업 중심 선별 - 향후 공공시설 관련 정책도 확대 검토	8	5	4
	교통	○			- 주요 부문 및 수단별로 핵심 정책을 묶어 설명	8	8	8
도시 기반	물관리 (상하수)	○			- 분절·중복된 원고를 보완하고자 해외 관심이 높은 핵심 정책 설명 및 제언원고 발굴	8	8	4
	폐기물	○			- 유기·무기·생활·전체 폐기물 정책 구분 - 해외 관심 정책·사례 선별	6	6	6
	보건의료		○		- 지방정부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이해 - 서울시 공공의료·보건정책·팬데믹 대응 설명	5	5	5
	안전	○			- 예방과 대응 정책을 구분하여 대표사례 선별	5	4	4
자연 환경	기후변화		○		- 예방과 대응 정책을 구분하고 분야별 정책 선별	5	5	5
	대기질 관리	○			- 성과가 입증된 정책 중심 재선별	6	5	5
도시 경제와 일상	자연생태		○		- 지속가능 정책, 토양·지하수·수생태 관리 사례 중심 선별	10	5	4
	경제		○		- 성과가 뚜렷하고 개도국에 교훈이 될 주제 선별	7	1	-
	주택	○			- 주택공급과 공공임대 정책을 분리하여 설명 - 포용적 주거정책·노후주거 개선 주안점 - 서울시 원조를 받은 사례 발굴	10	7	7
	복지·돌봄·교육·역사문화			○	- 도시발전 주요 분야로 향후 모듈화 주제 발굴	8	-	-
실행 체계	자원조달		○		- 해외 관심이 높은 분야로 원고 발굴·추진 필요	5	3	2
합계	14	7	6	4		102	71	63

### ○ 향후 과제

- ① 서울시 우수정책 설명서 국·영문 DB화: 검토·보완 → 번역·교정 → 국·영문 DB화 → 웹사이트 업로드
- ② 후속 우수정책 발굴 및 선별: 신규 분야(경제, 돌봄 등) + 기존 미진행 분야(전자정부·스마트시티)
- ③ 서울정책아카이브 정책실 국·영문 플랫폼 고도화·글로벌 활용성 제고 방안 모색

정책  
리포트

제433호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 및 그룹화와 정책 모듈화

발행인 오균

편집인 백선희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디자인 박진범

인쇄·제본 세일포커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